農村家族에서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硏究*

A Study on Familism in Rural Families

서울大學校 消費者·兒童學科
副敎授 玉 先 花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Wha Ok

〈목 차〉

Ⅰ. 序 論
Ⅱ. 理論的 背景
Ⅲ. 硏究方法 및 節次
Ⅳ. 調査結果 및 解析
Ⅴ.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gree of support of familism in rural families. Research procedure was carried out in two steps. First, comprehensive interviews were made with 9 opinion leaders of the village on the villagers' overall attitudes towards familism. Second, structured interviews were made with 316 married adult villagers on attitude towards familism. The survey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he Familism Scale.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through direct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own from this study.

1) Married adults in rural families were found to support familism comprehensively.
2) There was no difference by sex in the variables affecting familism.
3) The more aged were found to support familism more strongly.
4) The less educated were found to support familism more strongly.

Ⅰ. 序 論

家族主義價値는 오랜기간동안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家族主義價値는 농경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이다. 그런데 물질문명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합리주의적·개인주의적인 서구의 가치가 물질문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구적 가치의 유입은 家族主義價値의 보편적 수용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규범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전통사회나 현대사회 모두 가족주의가치가 지배적(Newcomb, 1965)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대 농촌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적 분석은 가족가치관 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玉先花, 1984), 家族主義價值를 주제로 하여 수행된 연구는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농촌가족은 家族主義價值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과거 농경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였던 家族主義價值가 현대 농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과거 농경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였던 家族主義價值는 산업화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현대의 농촌가족에서 어느 정도 지배적인 가치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농촌가족의 家族主義價值의 實在를 규명하여 전통농경사회의 價值가 현대농촌사회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農村家族의 家族主義價值의 實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農村家族의 家族主義價值는 性別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農村家族의 家族主義價值는 年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農村家族의 家族主義價值는 教育水準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1 家族主義價值는 실증적 분석으로는 鄭顯姬(1978)가 가족의 가치관 연구에서 핵가족에서도 家族主義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金在恩(1987)이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연구하면서 가족중심주의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玉先花(1989)가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연구에서 家族主義價值는 家族價值觀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Ⅱ. 理論的 背景

1. 家族主義價值의 概念

家族主義價值는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명료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家族'이라는 개념자체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나 구성원의 범위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家族主義價值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家族主義價值의 概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家族主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家族主義價值란 家族主義에 대한 價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家族主義란 일체의 價值가 家族集團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家族集團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家族構成員들의 꾸준한 집단적인 노력을 말한다(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家族主義는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사회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으며 실제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가족생활의 場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천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물질적 생활의 측면은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서구화에 접근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규범으로는 여전히 家族主義價值가 우리의 문화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家族主義的 價值란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孫仁銖, 1978:65)를 말하는 것이므로 家族主義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이기 이전에 家族의 일원임이 요구되었고 家族의 原理가 家族內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家族外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家族主義 國家에서는 國家까지도 家族의 질서에 의해 이룩된다(李光奎, 1975:15)고 한다.

個人이 家族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家族構成員보다 집(家)이 중시되어지는 경우와 또 그와 같은 家族的 人間關係가 家族외의 모든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가치체계를 총칭하여 家族主義(福武直外 編, 1958:崔在錫, 1979:23에서 재인용)라고 하므로 家族主義

는 家族 및 親族集團의 공동체적 유대의 존속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金漢九, 1982:5-27).

이러한 家族主義는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착 또는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 서구적 개인주의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 오고,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단결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주의도 점차 그 세력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잔영은 상당히 농후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金泰吉, 1982:165)고 하므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家族主義價値는 顯示的으로 또는 暗默的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家族主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핵가족단위의 가족을 생활의 중심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경우와 집중심사상과 개인의 집에 대한 매몰의 시각으로 정의하고 있는 두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家族主義를 핵가족단위로서의 가족에 한정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Burgess와 Locke(1945:Heller, 1970에서 재인용)는 다음 다섯가지를 家族主義의 측면이라고 제시하였다. 첫째로, 모든 家族構成員은 그들이 家族集團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고, 둘째로, 家族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개인활동을 완전하게 통합하며, 셋째로, 토지, 금전, 물적재화가 家族資産이라고 가정하여 개별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고, 넷째로, 만일 家族構成員이 국외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모든 다른 구성원은 기꺼이 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섯째, 成人子女의 경제활동의 시작 및 지속에, 또 새로운 家族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는 家族의 永久化에 대한 관심 등을 家族主義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Heller(1970)는 여기에서 넷째항을 제외하고 '父母와 結婚한 子女와 그들의 兄弟姉妹간의 친밀한 관계의 교환'으로 구성되는 '상호조력'을 추가하여 家族主義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미국 학자들의 견해는 주로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합주의 즉 가족관계, 우정관계, 교회, 국가와 같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하여 家族主義를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집중심주의와 개인의 집에 대한 매몰을 중심으로한 견해로 家族主義는 다음 다섯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첫째, 사회구성단위는 집(家)이며, 둘째, 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셋째, 일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넷째, 집안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의 신분의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다섯째, 이와 같은 인간은 비단 가족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외의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이다(崔在錫, 1979:2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家族主義는 父系中心의 孝와 祖上崇拜에 대한 支持가 기본이 되며 이에는 親戚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2

*2 친척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친척의 범위에 대한 관습상의 지각이 일치돼야 한다. 그러므로 친척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률상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친족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시대별로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조선시대의 經國大典(1985, 法制處 譯註)과 우리나라 民法을 근거로 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朴秉濠, 1974).

朝鮮時代의 親族의 범위를 有服親을 중심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풍습이 되었던 男歸女家婚俗으로 본다면 더 많은 외척과 처족이 有服親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정통성 및 유학을 통치의 기본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모순점이 있었지만 주자가례와 거의 동일하게 유복친의 범위를 정하였다(經國大典 禮典). 이후 조선 중기와 후기에 수차에 걸친 經國大典의 재편찬이 있었으나 그 기본 형태는 계속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에 妻家, 母家를 중시하던 고유풍속과의 마찰이 유교 통치로 점점 통합되어 점차 부계친의 권위가 자리잡히게 되었다. 조선 말기 刑法大典 62조는 經國大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동조 6항에 五服親외에 외족과 처족을 친족범위 내에 두어 친족범위를 확대시켰다. 일제시대에는 관습법 상의 친족범위로 경국대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 적용하였으며 이것이 新民法 第777條[親族의 範圍]에 계승되었다. 결국 현행 民法의 親族範圍는 經國大典과 같은 토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朝鮮時代이래 현행의 민법에 이르기까지 親族範圍가 법률상으로 큰 변화없이 거의 유사하므로 紐帶意識을 통하여 家族主義價値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親族의 範圍를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親族과 外戚의 개념이 포함되는 親戚 개념으로 사용하여도 개념상의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家族主義에 대한 정의는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면서 家族을 個人이나 다른 集團보다 우위에 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는다. 家族主義는 父系家族의 原理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는 五倫의 기본인 父子有親의 原理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관계에도 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즉 家族主義란, 첫째, 家族優先性, 둘째, 父系家門의 永續化, 셋째, 父母恭敬意識, 넷째, 兄弟姉妹 및 親戚間 社會經濟的 紐帶意識 등으로 구성된다.

家族主義는 연구자에 따라 家族主義價值 또는 家族主義思想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社會思想槪念으로서의 "家族主義思想"개념보다는 사회과학적 분석을 할목적으로 價值槪念인 "家族主義價值"개념을 선택한다. 가치개념은 사회과학의 핵심개념으로 사회, 문화, 인성 연구에서는 주된 종속변수이며, 사회적 태도와 행동연구에서는 주된 독립변수(Rokeach, 1973:Ⅸ)라고 하므로 家族主義價值를 종속변수로 삼는 본 연구에서는 '思想'개념보다는 '價值'개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價值란 永續的인 信念을 말하는 것으로 特定한 行動樣式이다(Rokeach, 1973: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家族主義價值는 위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家族主義 즉 家族優先性, 父系 家門의 永續化, 父母恭敬意識, 兄弟姉妹 및 親戚間 社會經濟的 紐帶意識을 永續的인 信念으로 가진 특정한 行動樣式을 말한다. 이러한 家族主義價值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경향도 보이지만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한남제, 186:177)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구성된 家族主義價值는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까지 확산되는 개념인 것이다.

2. 관련연구 고찰

이제까지 家族主義價值를 변수화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으므로(延珍泳 외 8인, 1983: 玉先花, 1984) 가족가치관 관련연구*3 중에서 본 연구의 家族主義價值 정의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관 연구중에서 가족주의가치와 관련되는 내용은 결혼과정에 대한 것으로 배우자의 조건, 결혼시기, 가족계획 등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가족주의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 즉 결혼후에 시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文惠淑, 1978)든가 배우자결정시 부모의 반대의견을 존중한다(高貞子, 1979:朴仁德, 1973)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배우자결정시 가족보다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玉亮練, 1977)든가 젊은 여성들의 경우 혼자서 살아갈 능력만 있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劉永珠, 1976:曺圭淵, 1980:曺英淑, 1980:洪承稷, 1971)고 하여 가족주의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한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연구중에서 본 연구의 가족주의가치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부부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형제자매 및 친척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사람들에게서도 家族主義價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와, 가족주의가치는 영역에 따라서 실제 행동상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으나 관념적으로는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거나 혹은 일부 영역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행동에도 표출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어 진다.

먼저 가족주의가치가 현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

본 연구에서의 친척간의 관계는 실제의 상부상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紐帶意識이므로 질문 문항의 '친척'을 피면접자가 관습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친척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면접에 대한 응답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3 한국인의 가치관에는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金泰吉, 1982:164)이나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포함(孫仁銖, 1978:53-87)되므로 가족가치관 연구중에서 家族主義價值의 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는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핵가족은 서구의 핵가족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가족주의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정현희, 1978)고 하며, 이영호(1975;김재은:1978에서 재인용)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가치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高貞子(1979)는 미혼남성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으면서 결혼, 가족계획,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가족주의적가치가 잔존하고 있다고 한다. 李效再(1971:13-14)는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족형태가 핵가족으로 된다고 해서 확대가족적 유대나 정서가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가족주의는 아직도 견고하게 한국사회조직의 밑바닥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도시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자녀들이 혼인과 더불어 분가하여 그들 중심의 핵가구를 창조하지만 그들은 시부모형제 및 친정부모형제와의 상호협조와 유대를 긴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부계친족제도가 오래 존속해 왔으며 조상숭배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동양사회에서는 핵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독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서 존재하여 온 가족주의가치는 현재도 변화하지 않은 채 현대인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다는 주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가족주의가치는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朴仁德(1979)은 우리나라의 가족은 부자중심가족에서부터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화하였다고 하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관념적으로는 남아선호사상이 바뀌지 않았으면서 양육행동에서는 아들 딸 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더우기 세대간의 관계는 부계중심에서 양계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여 가족주의가치가 잠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행동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학자들(金明子, 1980;金正植, 1981;朴玉仁, 1980;李千世, 1980)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견해들은 어느 것이나 가족주의가치의 어느 한 측면이나 일부분만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주의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현대인의 가족주의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를 규명한 연구(玉先花, 1989)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개인의 출신지역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즉 농어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더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주의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가치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家族主義尺度(玉先花, 1986)에 의하여 현대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를 규명하고자한다.

Ⅲ. 硏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현대농촌가족의 家族主義價値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를 농업중심의 농촌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가족의 부부로 정하였다.

농촌현지조사지역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이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家族主義價値가 현대농촌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도시화의 영향을 가능한한 적게 받고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하였으며 주산업이 농업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가치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명한 班村이나 이제까지 관련학계에서 전통마을로 지목하고 각종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은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역은 지방 시내버스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약 30분간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마을로 들어가는 곳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주로 3개 姓 정도의 姓氏로 구성되었으며 해당부락에 거주한 기간이 약 13대정도 지속된 원주민으로 구성된 부락과, 주된 姓氏가 없으

며 해당부락에 거주기간이 3-4대이하인 이주민으로 구성된 부락등이 포함된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소재 5개 부락이다. 대상부락의 조사지역 구획은 행정구역 즉 '里'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국민학교의 학구를 참작하였다. 학구를 참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사원들이 현지조사를 수행하는데는 통행이 불편한 강이나 산등 현지조사의 장애물이 가능한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개 국민학생의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 학구로 조사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한 조사대상지의 이장 및 국민학교 교장의 의견을 참고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지역과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이 里에 속하더라도 학구가 다른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해당부락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전원이었다. 다만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고령자나 조사거부자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이 본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지역인지에 대하여 대상지역의 지도자 즉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해당지역 국민학교 교장, 교감 등 9명을 면담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 주민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온 전형적인 농민으로 특별한 班家는 없었다. 따라서 선정된 지역은 본 연구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식량이 자급자족될 정도이었다. 그리고 부업을 약간씩 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풀베기를 하여 인삼재배자에게 판매하며 여자들은 '멍가잎'을 따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는 정도이다. 특수작물로는 담배와 인삼을 약간 재배하고 있었다. 가정용전기제품의 보급율도 낮아서 카셋트라디오가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흑백텔리비젼이 보급된 정도였다. 조사대상지역은 295가구 이나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매년 1개 里당 1-2가구가 이농한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수준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며 가족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식량이 자급자족되기는 하나 경제수준이 낮아서 불만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히 생활에 대한 개선의지도 없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습득이나 부업개척의 노력도 별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198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민학교 졸업생 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고등학교진학률은 50%정도이다. 중학교 입학금과 교과서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부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농촌 청년들의 혼인 문제이다. 농촌청년과 혼인하고자 하는 여성이 부족하여 30세를 넘기고도 혼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농촌현지조사에서 면접한 대상은 모두 316명으로 남녀 각각 158명씩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면접자의 평균연령은 48세이며, 20대가 8%, 30대가 17%, 40대가 28%, 50대가 29%, 60대이상이 18%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무학이 35%이고, 국졸이 51%, 중졸이상이 14%이다.

2.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농촌현지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면접조사가능성과 적합성을 타진하였다. 대상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대학원생 면접조사원 5인과 연구자가 대상지역에서 직접 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면접법으로 실시되었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家族主義尺度(玉先花, 1986)를 사용하였으며, 피면접자의 가족상황과 家族主義價値를 묻는 문항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조사목적과 응답방법을 질문지의 1면과 2면에 기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보충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면접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조사 척도인 家族主義尺度는 분석시 변별력이 없는 일부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 계수가 .66이다.

1인당 면접시간은 약 30분 정도이었으나 피면접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4. 분석방법

家族主義價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家族主義價値 점수의 빈도와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본 家族主義價値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고 각 변수별 하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분석으로 Scheffé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Ⅳ. 調査結果 및 解釋

1. 家族主義價値의 實在

家族主義價値의 實在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문항별 응답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현지조사 당시 본조사를 보완하고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상 里의 이장과 국민학교 교장 및 교감을 심층면접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5개 里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2명 그리고 교장·교감으로 선정된 9명의 제보자들은, 이마을 사람들은 철저한 유교신봉자이니 각각을 면접해도 응답내용은 모두 유사하게 家族主義價値를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어느 측면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의 의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척도 단위로 가족주의가치를 보기에 앞서 각 문항별로 결과를 제시하여 농촌 가족에서의 家族主義價値의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1〉을 보면 전체 문항중에서 7문항 즉 제사, 친척지원, 부계의존, 분가거주거리, 경제적 연대책임, 부모의사존중, 가문의식은 평균점수가 4점을 넘는다. 여기에 응답자의 71-95%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선택기준, 출산의미, 의사결정부모의존, 장남의 부모동거, 가족의견존중, 가족관심 문항은 평균점수가 3점이상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현대 농촌가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가 상당히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부모의존과 같은 문항은 3점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면접 후의 추가 질문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질문한 결과,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거나 부모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든가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등으

〈표1〉 가족주의가치 각 문항별 응답경향 백분률

N=316

구 분	매우찬성	약간찬성	찬반미정	약간반대	매우반대	평균점수
가 족 관 심	42.9	18.9	6.1	17.5	15.0	3.6
가족의견존중	30.4	15.0	6.7	17.3	30.7	3.0
배우자선택기준	34.5	19.7	6.0	18.1	21.9	3.3
출 산 의 미	52.5	18.5	6.7	13.7	8.6	3.9
가 문 의 식	71.0	13.1	2.2	8.3	5.4	4.4
제 사	68.5	13.1	1.9	10.5	6.1	4.3
부모의사존중	74.1	17.6	2.6	3.8	1.9	4.6
분가거주거리	73.6	11.5	10.5	2.9	1.6	4.5
의사결정부모의존	22.0	12.4	5.1	20.4	40.1	2.6
장남부모동거	40.6	21.4	3.8	21.4	12.8	3.6
경제적연대책임	83.8	11.1	3.2	1.3	0.6	4.8
부 계 의 존	65.0	9.2	19.1	4.1	2.5	4.3
친 척 의 존	58.3	13.4	11.1	11.1	6.1	4.1

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농촌 가족에서의 家族主義價値는 사회적 변화와 부모자녀간의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농촌가족에서 전반적인 경향은 家族主義價値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항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계의식이라든가 조상숭배에 대한 것은 전통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현재의 일상생활 특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반영되는 家族主義價値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변수별로 본 家族主義價値

관련변수에 따른 家族主義價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분석한 13문항중에서 문항분석결과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4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性, 年齡, 教育水準에 따라서 가족주의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들 변수로 구성된 가법적 모형으로 농촌가족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중분류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性, 年齡, 教育水準별로 본 家族主義價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한다. 이는 도시가족의 경우(玉先花, 1989)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보면 국졸이하집단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고졸집단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 이는 국졸이하집단에서부터 고졸집단으로 갈수록 가족주의 가치의 지지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도시가족의 경우

〈표 2〉 성, 연령, 교육수준별로 본 가족주의가치의 일원분산분석표

변수	범 주	평균점수	빈도	F값
성	남	34.9	157	
	여	35.3	154	1.06
연령	20대	30.4	24	
	30대	31.1	53	
	40대	31.2	86	
	50대	33.4	91	
	60대이상	35.0	56	3.68**
교육수준	국졸이하	34.1	108	
	중 졸	32.6	159	
	고 졸	28.3	32	
	대졸이상	29.5	11	6.94

** p 〈 .01

*** P 〈 .001

와 일치하나 대졸집단이 고졸집단보다 평균점수가 약간 높은 것은 도시가족과 다르다. 도시가족연구(玉先花, 1989)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의 지지정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졸집단의 평균점수는 고졸집단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이는 Scheffé 검증결과 범주간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고졸집단과 대졸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보자면접과정에서 원인이 파악되었다. 즉 이 조사대상지역에 대졸학력자는 극소수인데, 이들은 교육수준의 차이가 주민들과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이 전통적인 마을의 질서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고 지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시 마을의 고졸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변수별로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연령과 교육수준변수로 구성된 가법적 모형으로 각 변수가 가족주의가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수별로 타변수를 통제한 후에 가족주의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본 결과, 연령별로는 범주간의 차이가 감소되어서 20대집단과 60대이상집단간의 차이가 4.84점에서 2.71점으로 감

* 4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문항의 변별력을 계산한 결과 〈표1〉의 각 문항 중에서 '부계의존', '분가거주거리', '경제적 연대책임', '부모의사존중'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3〉 농촌가족의 가족주의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중분류분석)

요소 (총편균:32.55)	N	총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연령					
20대	24	-2.43		-0.86	
30대	53	-1.59		-1.42	
40대	86	-0.78		-0.47	
50대	91	0.82		0.36	
60대이상	56	2.41		1.85	
			0.22		0.16
교육수준					
국졸이하	108	1.51		0.99	
중졸	159	0.04		0.24	
고졸	32	-4.21		-3.49	
대졸이상	11	-3.10		-3.04	
			0.25		0.21
총 계 310					

R^2=0.085***

소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주의가치의 차이 역시 범주간의 차이가 감소하여 국졸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간의 차이가 5.72점에서 4.48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에타값과 베타값을 비교해 보면 연령은 0.22에서 0.16으로, 교육수준은 0.25에서 0.21로 설명력이 각각 약간씩 낮아졌다. 그런데 농촌가족의 가족주의가치는 연령보다는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고졸인 집단의 가족주의가치가 가장 낮고, 국졸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과 연령변수들의 설명력(R^2)은 0.085로 이 변수들이 농촌인의 가족주의가치의 8.5%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인들의 가족주의가치를 설명해주는 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낮다. 이는 전반적으로 농촌인들은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들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V. 結論 및 提言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成人 旣婚者를 중심으로 본 現代農村家族에서는 전반적으로 家族主義價値를 지지하고 있다. 즉 농촌가족은 家族主義價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家族主義價値가 朝鮮時代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과 內容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사회의 기본적인 價値로 장려되었던 점(玉先花, 1989)을 생각하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농촌가족에서 家族主義價値는 성별로 볼 때 차이가 없다. 이는 도시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도시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주의가치를 덜 지지한다.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가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으며 여성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성별로 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한다. 이는 다른 지역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가치지향의 보수성은 측정된다.

넷째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더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역시 가치지향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졸집단과 대졸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자의 적응기제로서 고학력자의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적인 동화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족주의가치가 농촌가족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전통적 인간관계의 규범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현대인의 수용정도를 밝혀준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도시가족의 가족주의가치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촌가족의 가족주의가치의 실재가 파악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족주의가치와 가족관계의 역동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가 가치와 인간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高貞子, 1979,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권2호:57-81.

2) 金明子, 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대한 연구 —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 관동대학 논문집 제8집:453-470.

3) 金正植, 1981, "한국 농민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 1959년과 1981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金在恩,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 문헌 및 조사연구 —,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5) 金泰吉, 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문음사.

6) 金漢九, 1982,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6:3-27.

7) 文惠淑, 1978, "이상적인 가족관에 관한 연구 —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朴秉濠, 1979, 韓國法制史攷, 서울:법문사.

9) 朴玉仁, 1980, "주부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순천시 주부를 대상으로 —" 순천농업전문대학논문집 제17집:433-459.

10) 朴仁德, 1973, "韓國人의 結婚觀에 關한 硏究-男女 및 旣·未婚別 —" 아세아여성연구12집: 151-172.

11) ———, 1979, "韓國家庭生活의 價値觀에 關한 一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法制處, 1985, 經國大典, 서울:일지사.

13) 孫仁銖, 1978, 한국인의 가치관:교육가치의 재발견, 서울:문음사.

14) 延珍泳 외 8인, 1982, 가정관리학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재출판사.

15) 玉先花, 1984, "가족가치관", 대한가정학회편,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 아동학 가족관계, 서울:신광출판사.

16) ———, 1986, "가족주의가치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주의척도제작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3호:143-153.

17) ———,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玉亮鍊, 1977, "한국 미혼여성의 결혼관 — 부산시내 은행여성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논문집(인문과학편) 제16집:511-524.

19) 劉永珠,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 현대인의 결혼관조사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127-150.

20) 李光奎,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21) 李千世, 1980, "가족관계에서의 가치관", 안동대학 논문집 제2집:65-74.

22) 李效再, 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한국연구원.

23) 曺圭淵, 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曺英淑, 1980, "전문대학 여대생의 결혼관계 대한 조사연구", 순천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311-332.

25) 정현희, 1978,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崔在錫, 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개문사.

27) 洪承稷, 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8) Heller. Peter L. 1970, "Familism scale: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73-80.

29) Newcomb. T. M., R. H. Turner, and P. E. Coverse,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0) Rokeach, Milton,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The Free Press.